

**지식재산인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으로 ‘진짜성장’ 실현**

- 지식재산처·한국발명진흥회, 2026 지식재산인 신년인사회 개최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 20.(화) 17시, 삼정호텔(서울 강남구)에서 ‘2026년 지식재산인 신년인사회’를 통해 올해 지식재산 정책 목표를 공유하고 업계 주요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황철주 한국발명진흥회장과 세계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 박범계 공동대표, 역대 특허청장, 원로발명가 및 발명특허·문화예술 유관기관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하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과 김원이 국회의원, 세계지식재산기구 다렌 탕(Daren Tang) 사무총장도 축전과 영상으로 신년 인사를 전했다.

이날 인사회는 1949년 상공부 특허국으로 시작해 1977년 특허청 승격, 2025년 지식재산처 승격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처의 역사를 담은 영상과 각계 축하메시지 상영, 지식재산인들로 구성된 ‘지식재산(IP)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축하 공연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지식재산인들은 지식재산처 승격 이후 첫 해가 되는 2026년이 지식재산 제도 발전에 의미 있는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각오를 함께 다졌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올해 ‘국민의 아이디어와 지식이 든든한 자산이 되는 나라’라는 비전 하에, 아이디어를 자산으로 만드는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쓸 계획”이라며 “새 해에 지식재산인의 창의성과 도전정신이 대한민국의 ‘진짜성장’과 ‘대도약’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부서	지식재산정책국 지식재산정책과	책임자	과 장	한덕원 (042-481-5168)
		담당자	서기관	구정민 (042-481-5429)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1.20.(화) 17시 삼정호텔(서울 강남구)에서 '2026 지식재산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사진 1: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이 '2026 지식재산인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 2: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에서 9번째)과 황철주 한국발명진흥회장(왼쪽에서 10번째)이 신년인사회를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